

우리 동네 핫플
이 가게 어때?

샌드선사인 죽전점

달서구 외동로53길 12
문의 ☎053-710-2979

'샌드위치와 샐러드' 다이어트와 건강을 동시에

다이어트식으로도 좋고 피크닉에 빠질 수 없는 도시락으로 좋은 건강도 챙기고 맛도 챙길 수 있는 샌드위치와 샐러드 맛집인 '샌드선사인'을 소개해 본다.

죽전역 근처 자리 잡은 '샌드선사인' 죽전점은 단체 주문과 예약 주문이 가능한 곳이다. 단체 예약 주문 시 최소 3일 전에 예약하는 것을 추천.

샌드위치와 샐러드 종류도 다양하고 어느 것 하나 빠질 것 없이 다 추천해 주고 싶다.

요즘 건강식 메뉴로 SNS에서 인기 있는 당근라페가 가득 들어있는 아메리칸 햄 치즈샌드위치와 햄프 씨드 닭가슴살 샐러드를 주문해 보았다.



샌드위치도 아주 푸짐하고 짭 차 있는데 알록달록 보기에도 예쁘고 맛있어 보이는 비주얼이다.

당근라페로 식감까지 한층 더 좋게 만들었다. 뜨거워지는 여름 날씨에 가벼워지는 옷차림에 다이어트를 고민하는 분에게 추천하고 싶다.

칼로리는 낮고 맛과 식감은 훌륭하며 포만감까지 주는 아메리칸 햄 치즈샌드위치. 그리고 햄프 씨드 닭가슴살에 오리엔탈 소스로 단백질 섭취까지 놓치지 않는다.

각종 다양한 채소들과 닭가슴살, 병아리콩, 삶은 계란으로 포만감까지 채워주며 샌드위치와 닭가슴살 샐러드까지 당장 가까운 공원에라도 찾아가서 소풍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새콤달콤한 과일샐러드로 상큼하게 마무리까지 할 수 있는 일찬 구성으로 건강하고 든든한 한 끼 식사



로도 손색없었다. 인스턴트와 기름진 음식들을 많이 접하는 요즘, 한 번쯤 신선하고 건강한 재료들로 도시락을 준비해

서 가족, 연인과 가까운 곳으로 소풍을 나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정윤재 객원기자

역사극 전문 채널
역사는 드라마다!
씨엔티브이

푸른방송 알뜰형 33-1 / 디지털 51번

중국 드라마 전문 채널
완벽 자막으로 즐기는 중드
채널차이나

푸른방송 알뜰형 56-1 / 디지털 121번

액션 영화 전문 채널
세계의 모든 액션을 즐겨라!
채널액션

푸른방송 디지털 98번

우리 동네 핫플
이 가게 어때?

D#(다샵)

달서구 당산로8(감삼동 206-74) 1동 101호
문의 ☎0507-1347-9829

맛있고 가성비 좋은 '더치커피'

한국 사람의 커피 사랑은 유별나죠. 하루에도 몇 잔이나 소비하게 되는 커피, 저 역시도 하루 한 잔 이상은 꼭 커피를 마셔야 하기에 하루 한 번 이상은 카페를 들르게 됩니다. 오늘은 새로 생긴 카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두류시장 길 건너편, 감삼동 흠플러스익스프레스 옆에 있는 이곳은 사장님이 직접 내리신 더치커피를 기본으로 해서 더치 아메리카노라든지 더치라떼나 더치 바닐라라떼 등 여러 커피 메뉴를 만들어 주시는 곳입니다.

저는 아메리카노를 연하게 먹는 편이라 더치로 만든 아메리카노가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습니다. 연하고 부드럽고 그렇

지만 깊은 맛의 더치커피는 일반 아메리카노의 '원두를 태운 맛?' 이 느껴지지 않아 저에게겐 너무나 딱 맞는, 정말 맛있는 것이었습니다.

더치커피는 원두에 따라서도 맛이 달라지는데 더치커피를 내린 원두를 확인하면 좀 더 자신의 취향에 맞는 커피 맛을 고를 수 있습니다. 더치커피는 원액도 따로 판매하고 있어서 원액을 구매 후 집에서 각자 취향으로 다양하게 즐기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다만 이곳은 테이크아웃 전문점이라 매장 내에서 식사는 안 되는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마감 시간은 저녁 9시인데 날벌레들 간혹 있어 저녁엔 문을 닫아 두는 터라 일찍 마감하셨나 하

실 수도 있습니다. 불이 켜져 있으면 아직 오픈된 거라 노크로 사장님을 부르시면 된다고 합니다.

월요일은 휴무~!!
슬슬 더워지는 출근길, 퇴근길에 시원한 아이스 더치아메리카노 한잔 어떠세요?

배태순 객원기자



한울안중 · 세현초 · 구지초

한마을 세학교가 함께 '학생기후정의행진'

달성군 현풍읍과 구지면에 소재한 한울안중학교(교장 변흔갑), 세현초등학교(교장 이성희), 구지초등학교(교장 김태영)는 지난 14일(금)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마을 주민과 함께하는 미래 지향적인 교육 활동을 위해 '학생기후정의행진'을 실시했다.

한울안중과 구지초는 환경

에 대한 많은 관심을 바탕으로 여러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한울안중과 세현초는 생태전환교육 실천학교로서 환경교육활동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세 학교는 연합하여 학생들이 환경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소통하고 있다.

특히, 올해 현풍구지마을에



서 진행하는 '학생기후정의행진'은 학생들이 기후위기에 대해 배우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직접 학교 담장을 넘어 우리가 직면한 환경 문제 해

결을 위해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실천하는 경험을 통해 환경시민으로서 필요한 역량을 기르고자 마련됐다.

또한, 학생들이 서로 연대하

고 응원하며 마을과 지역사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켜 환경에 대한 사회 전반의 관심을 촉구하고자 한다.

<자료제공:대구시교육청>

<도라에몽>, <파워레인저 킹덤포스>, <알로스와 친구들>
가족과 함께 볼 수 있는 애니메이션 채널

디지털
185번
가족과 함께

ANIONE

Animation

ANIBO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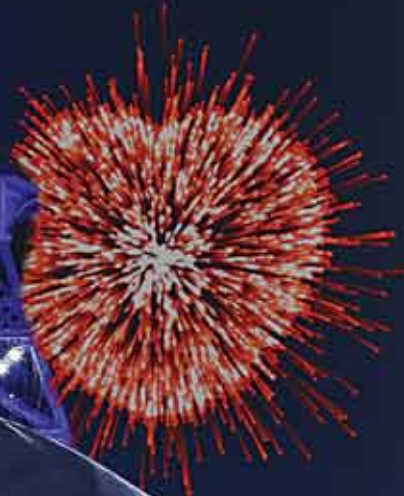
디지털
182번
한일 동시

<원피스> 부터 <블루 아카이브>까지!
한일동시 애니메이션을 가장 빠르게 볼 수 있는 채널!

SBS Sports

X

이강인



우리 동네 핫플
이 가게 어때?

미지촌추어탕

달서구 달서대로 283길 47(용산동 613)
예약 전화 ☎053-567-7976

직접잡은 '자이린산 민물고기' 보양식

전국이 서서히 더워지고 특히 대구는 전국에서 알아주는 더위로 유명하다. 오죽했으면 대구를 대프리카라고 할까? 대프리카를 말만으로도 대구의 더위를 짐작할 수 있는데 찜통더위가 시작될수록 우리 몸은 더욱 쉽게 축나게 된다. 이런 시기에는 먹는 음식도 보양식을 많이 섭취해야 조금이라도 이제 시작한 2024년 무더위를 쉽게 보낼 수 있을 것 같다.

원기 회복에 좋은 보양식의 종류는 여러 종류(삼계, 장어, 낙지, 전복 등)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어탕이 전통 보양식이라고 생각해 용산동에 있는 어탕 명가인 '미지촌어탕'을 방문했다.

'미지촌어탕'은 용산동 달구벌복지관 인근 미르재단 전(한 동 아파트) 주차장 앞에 위치해 있어, 주소 검색을 해 보고 가는 것이 좋다. 위치가 골목 안쪽에 있어서 좀 애매하다. 가게 주변 전용 주차는 4~5대가량 할 수 있으며, 인근에 주차할 곳이 많이 있어서 주차 걱정은 크게 할 필요가 없다.

가게 내부는 생각보다 자리도 많고 크다. 밖에서 보는 것과는 사뭇 달랐다. 이런 점심시간에 왔는데 많은 분이 자리에 있었다.

어탕 전문점이니, 메뉴는 당연히 어탕이다. 메뉴판을 보다 보니 요리부 메뉴는 특미는 쏘가리+잡어 매운탕(5인) 정도의 양이 되며, 쏘가리(大中小), 잡어(大中小), 메기매



운탕(大中小), 메기찜(大), 수육 등으로 함께 온 지인들과 즐길 수 있으며, 개인 메뉴는 어탕, 제육 정식으로 점심 식사를 소수의 인원으로도 즐길 수 있고, 사이드 메뉴는 껌지조림, 도리뱅뱅, 파전, 팽초부추전 등이 있다.

요리 음식이나, 점심 식사 등을 하러 온 손님들도 부족한 음식이 있을 시 추가로 사이드 메뉴를 먹어보는 것도 추천하고 싶다.

주문과 동시에 제공되는 기본 반찬은 어묵조림, 두부조림, 도라지무침, 멸치볶음, 김치 등이며, 어탕 집에서 빠질 수 없는 다진 매운 고추, 마늘 양념장, 제피가루가 준비되어 있다.

개인적으로 어릴 때 집에서 해주는 추어탕을 많이 먹었는데 항상 이때도 제피가루 꼭 필요했었다. 많이 넣으면 안 되지만 빠져서도 안 되는 어탕에 첨가해서 먹는 향신료 중 하나이다.

기본 반찬을 맛을 보고 있는 동안 주문한 어탕 국밥이 뚝배기에 담겨서 펄펄 끓고 있는 상태로 내 앞에



대령됐다.

조금 걸쭉한 상태인 어탕 국밥은 물 좋은 곳에서 공수해온 민물 잡아 고기를 곱게 갈아 넣고 손질이 끝난 얼갈이배추를 가득 넣고 오랜 시간 푹 끓여서인지 첫맛은 매우 담백한 맛이 느껴졌다. 그냥 영양이 쭈욱 들어오는 그런 기분이다. 매운 청양 다진 고추를 듬뿍 넣어 한입 한입 하면서 먹다 보니 땀이 송골송골 맺히는 것이 몸속에 불순물들이 다 빠져나가는 그런 기분이 든다.

한입 한입 하면서 가게 내부를 잠시 살펴보니 역시나 어탕 집은 주메뉴인 어탕이라는 음식에 대한 효능을 정리해서 걸어둔 내용이 있어서 함께 작성해 본다.

어탕의 효능은 다음과 같다.

'민물고기 특유의 단백질과 지방, 칼슘이 풍부하여 피부미용과 다이어트에도 좋으며, 숙취의 해장국으로도 적합한 건강식품이다. 장어, 메기, 미꾸라지 등 각종 민물고기를 야채와 함께 삶아 끓인 음식이므로 보신탕과 삼계탕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사계절 보양식이다. 한 그릇이라도 정성을 다하는 미지촌 어탕매운탕 전문점으로 푸른방송 추천 맛집이다.

기회가 된다면 요리부의 특미(쏘가리+잡어 매운탕) 상품을 한번 먹어보고 싶다. 가게에서 특미로 추천하는 이유가 있을 테니 그 맛이 궁금해진다. **정말봉 객원기자**

CHU

온리U 드라마
드라마와 입 맞CHU다

해외(유럽)드라마 전문 채널

디지털 9.5점

효성여고 부모님들의 ‘깜짝 노래 선물’

울림 합창제, 학생들에게 감동 선물

효성여자고등학교(교장 김종오)는 지난 14일(금)에 학교 강당에서 ‘울림 합창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합창제는 1학년이 준비한 학급 합창 공연으로 구성됐으며, 3개의 학급이 연합해 무대를 꾸민 점이 이색적이었다.

행사 막바지에 사회자가 “특별한 순서가 있다”며 학부모님들을 무대 위로 안내했다. 무대에 오른 학부모들은 몇 주간 학생들 몰래 학교에 찾아와서 연습한 합창곡을 선보이며,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큰 감동을 안겨주었다.

이번 행사는 학부모와 학생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학교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또한, 합창을 통해 협동과 배려, 공

동체 의식을 배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깜짝 공연을 준비한 학부모들은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로 구성됐으며, 대부분 합창 경험이 전무했지만, 연습을 게

을리지 않았다.

공연을 준비한 학부모는 “아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알기에 우리도 그에 부응하고 싶었다. 모든 학부모님들이 한마음으로 준비한 덕분에 멋진 공연을 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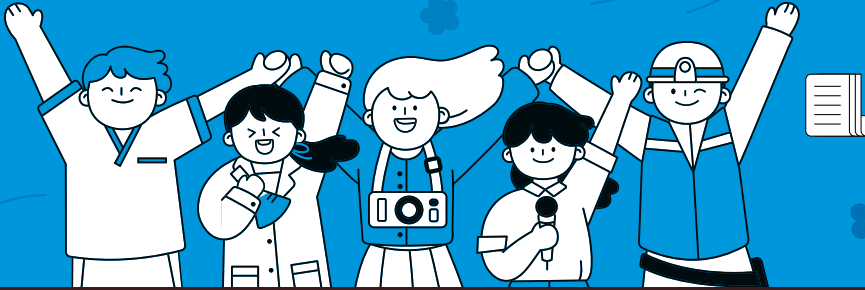
학부모 합창 지도를 한 노지현 교사는 “아이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로 땀뿜 뭉쳐 열정적으로 연습에 참여하는 학부모님들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다.”라고 말했다.

깜짝 무대를 관람한 1학년 학생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선물이었다.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멋진 공연을 보여주실 줄은 몰랐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감동적이었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효성여자고등학교>

우리 지역의 소식을 푸른방송 제보에 전해주세요

푸른방송은 지역민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푸른방송 제보>를 통해 전하고 싶은 사건/사고/뉴스 등 우리 지역 소식을 전해주세요.



Talk 카카오톡 <푸른방송 제보>

1. 카카오톡 우측 상단에서 푸른방송 제보를 검색하세요!
2. 채널 추가 후 1:1 채팅하기로 24시간 제보 가능!

이메일 : gcs_jebo@gcs.co.kr
전 화 : 053-551-2002 / 053-572-6000



동곡초, 치과선생님과 함께하는 구강건강 증진활동

대구동곡초등학교(교장 남지윤)는 지난 13일(목) 경북대학교 치과대학 지도교수와 학생들의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전교생을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 및 진료가 실시됐다. 이번 방문검진은 경북대학교 치과병원에서 2024년도에는 처음 이루어진 일반 학교 대상 구강진료 봉사로, 경북대학교 치과대학 지도교수(소아치과 이제식) 선생님과 치과대학 6명이 참여했다.

<자료제공:동곡초등학교>



현풍초, 대구문화예술회관 ‘찾아가는 공연’

대구현풍초등학교(교장 류은영)는 지난 10일(월) 대구문화예술회관 주관 대구시립예술단 공연지원팀이 참여하는 ‘찾아가는 공연(사랑방 음악회)’을 교내 시청각실에서 관람했다. 이 공연은 국악기 설명과 함께 각 악기들의 독주를 감상하고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는 작품으로, 어린이 관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중간중간 해설과 연주가 곁들여지는 참여형 공연 형태로 진행됐다.

<자료제공 대구현풍초등학교>

내당초, 우리 가족은 '내당 알려 패밀리'

교육공동체가 함께 교통안전 캠페인

대구내당초등학교(교장 배이선)는 지난 13일(목)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함께하는 '내당 알려 패밀리' 3차 활동으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내당초는 학교 내외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교육공동체가 함께 해결하기 위해 '내당 알려 패밀리' 캠페인 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1차에는 78가족이 함께 대구 10대 학부모 선언문 읽기, '내당교육'을 시제로 4행시 짓기 등의 활동을 했고, 2차는 7가족이 '학교폭력을 근절하고 바르고 고운 말을 쓰자'를 주제로 아침 등굣길에 캠페인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3차 캠페인은 내당초 교직원과 참가 가족들이 '교통 규칙 준수로 안전한 등굣길을 만들자'를 주제로 학생과 학부모, 일반 시민들에게 불법 주정차 금지, 무단횡단 금지, 보행 중 휴대폰 사용 금지 등을 알리는 구호를 외치고,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교통 규칙 준수를 약속하는 의미로 지우개를 나누어 주었다.

캠페인에 참여한 한 학생은 "엄마, 아빠, 동생과 함께 교통안전 구호를 외치니 즐거웠고, 친구들에게 지우개를 나누어 주며 교통 규칙 잘 지키



자라고 이야기하니 뿌듯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행사에 참여한 학부모는 "지난번 학교폭력 캠페인을 해보니 재미있어서 이번에도 참여했다. 아이와 함께 참여한 일 모두 좋은 추억이 될

것 같다. 색다른 행사를 준비해 주신 학교에 감사드립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내당초는 올해 '학부모와 함께하는 행복한 교육공동체' 공모학교로 지정되어 '내당 알려 패밀리' 캠페인

활동 외에도 2학기 '내당 가족 힐링 노래자랑' 개최 등 교육공동체가 함께 배려하고 성장하는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자료제공:대구내당초등학교〉



대남초, 랜덤 플레이 댄스 'K-pop의 미래는 저희가 이끌어요'

대구대남초등학교(교장 류춘원)는 지난달 29일(수) 학생 참여 예산제의 일환으로 '대남 랜덤 플레이 댄스' 행사를 실시했다. '랜덤 플레이 댄스'는 무작위로 들려주는 음악을 듣고 그 노래의 주요 부분의 안무를 똑같이 추는 놀이로, 학업 스트레스 해소와 친구 관계 개선, 재능 발현 등을 위해 학생회에서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자체적으로 설계했다. 특히, 학생 참여 예산제로 학생들이 행사 계획부터 물품 구입, 운영 및 정리까지 직접 참여하여 더욱 뜻깊은 행사가 됐다.

〈자료제공:대구대남초등학교〉



달성초 '학생주도 캠페인' 우리 학교를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대구달성초등학교(교장 이종숙)는 2024년 학생회가 주도하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 캠페인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달성초는 최근 신축아파트 입주로 전입생이 증가하고 있는 학교로, 여러 지역의 학생들이 학급, 학년을 구성하고 있어, 학생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학교폭력 상황에 대해 협의해, 월별 학교 폭력 예방 주제를 선정해 캠페인을 운영하고 있다.

Mplex 월드와이드무비채널

세상을담다, 고품격다큐멘터리채널

DOCU ONE

드라마를원한다면

D ONE

KMH



예로부터 총과 호의 고장이라 불리는 예천에는 호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전해오고 있다. 명심보감에 소개된 도시복의 호행에 얽힌 이야기들에 등장하는 슬개·홍시·수박·잉어 등의 테마를 조형물로 재현해 놓은 이곳에서 실아생전 부모님의 마음을 더 편안하게 해드리고 한 번 더 찾아 뵙고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는 다짐을 새로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예천 도시복생가

전국문화사진초대작가회
부회장 이혜순

제25회 전국문화사진공모전 대상 이정화 씨 '어머니의 초상'

대구광역시달서구문화원(원장 조현정)이 주최하고 전국문화사진 초대작가회가 주관, 달서구·달서구의회, 푸른방송(주), 푸른신문, 한국문화원연합회가 후원하는 '제25회 전국문화사진공모전' 입상작과 '제18회 전국문화사진 초대작가전'이 달서구문화원 달서갤러리에서 8월 12일(월) 오전 10시~17일(토) 오후 4시까지 열린다.

이번 공모전에서 대상에는 대상 이정화 '어머니의 초상'이 차지했고, 금상에 배만경 '죽음의 골짜기', 은상은 하승철 '흰긴수염고래였던 것'과 임지향 '달고나의 유혹', 동상에 박은경 '시간속으로', 박정희 '우수 깃든 영화관 계

단에서', 김정민 '푸른 하늘을 농구 골대에 풍당', 가작에 남선수 '은행나무와 아이', 정철재 '멈춰진 시간', 최진팔 '비온 뒤의 동네 풍경', 이영수 '낚시는 즐거워' 등 11점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고, 특선 15점, 입선 44점이 전시된다.

이번 공모전에서 심사를 맡은 서진은 대구예술대학교 사진영상미디어 교수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토대로 우수한 작품을 많이 출품해 주신 한국의 사진 동호인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사진 공모전이 더욱 활성화되어 한국 사진계의 발전을 위한 기폭제가 되어 사진영상을 통해 우리 삶의 참모습을 새롭게 조망해

보는 계기가 되고 더 나아가 한국 사진 문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는 신선한 영상의 제전으로 승화할 수 있게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전국문화사진공모전은 1회 때부터 사진영상학과 교수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해 오고 있으며, 출품료를 받지 않고 출품자 전원에게 작품집을 제공하는 등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공모전으로 평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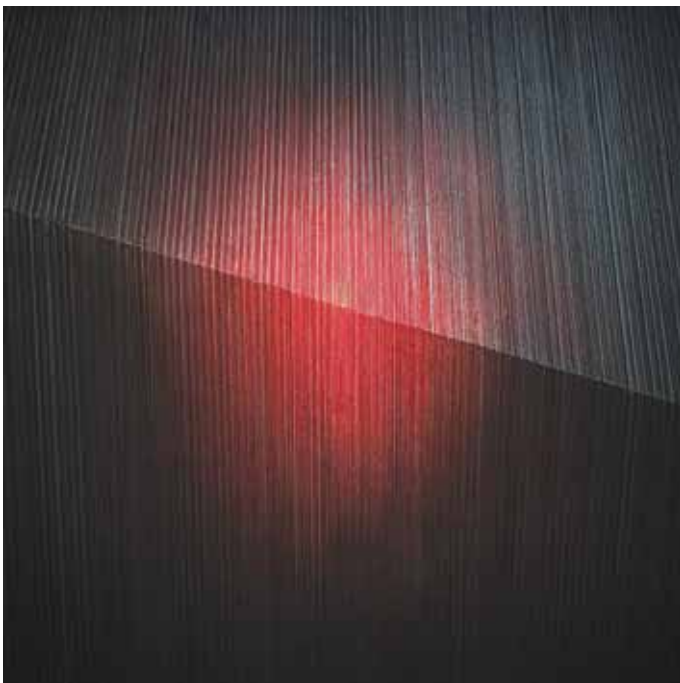
공모전 시상식은 8월 12일(월) 오후 6시 30분 달서구문화원 달서갤러리에서 개최한다.

문의)053-554-4800

<자료제공:달서구문화원>

공모전 입상자 명단(70점)

- ▶대상: 이정화 '어머니의 초상'
- ▶금상: 배만경 '죽음의 골짜기'
- ▶은상(2점): 하승철 '흰긴수염고래였던 것' / 임지향 '달고나의 유혹'
- ▶동상(3점): 박은경 '시간속으로' / 박정희 '우수 깃든 영화관 계단에서' / 김정민 '푸른 하늘을 농구 골대에 풍당'
- ▶가작(4점): 남선수 '은행나무와 아이' / 정철재 '멈춰진 시간' / 최진팔 '비온 뒤의 동네 풍경' / 이영수 '낚시는 즐거워'
- ▶특선(15점): 배만경 '봄의 왈츠' / 박정희 '막다른 골목의 여유' / 이영미 '그때 그 시절' / 이영수 '바다가 그린 그림' / 이정화 '경계의 문' / 심진희 '바다호수' / 문성식 '바다로 향하는 경운기 행렬' / 김세곤 '부처님 오신 날' / 김종찬 '민들레 홀씨1' / 김효은 '가게' / 임지향 '선택의 문' / 장국진 '숙취에는집이 최고' / 박은경 '하늘을 나는 새' / 김진호 '홍콩에서의 비상' / 허철구 '전통시장의 일상'
- ▶입선(44점): 박성연 '정리정돈' / 허만현 '남자의 바다3' / 김준영 '육신사' / 배만경 '화산의 흔적' / 송시봉 '강강술래 축제의 밤' / 박정희 'rain and window' / 권연화 '따스함' / 이영미 '아침이면' / 김지혜 '아침 출근길' / 고한상 '맛있겠다' / 전정현 '주인 짐시 외출중' / 김미정 '모두 힘 모아 영채!' / 이영수 '동심' / 여영숙 '싱그러운 초목의 향연' / 이동휘 '등산길 해우소에서 꽃핀 생명' / 이재환 '어울림' / 박한설 '떠나는 길' / 윤예인 '낭만' / 최대인 '어둠 속 생명의 가락' / 박창현 '철새들의 낙원 순천만' / 전은경 '청정해역 장생포 앞바다' / 김규규 '도담삼봉의 몽환적 이미지' / 장아름 '항해' / 김근혁 '엄마의 아파트벽화가 있는 풍경' / 김세곤 '단양 스카이워크' / 김주은 '너도나도 불러 있고 싶어' / 박인호 '장검다리에서 만남' / 신연민 '기다림' / 노이자 '꿈을 그리는 사나이' / 최진팔 '청바지 가족' / 권영동 '월류봉' / 장철현 '2만 년의 역사' / 이유민 '오르락내리락' / 이덕우 '세월2' / 임지향 '성수동' / 장국진 '궁금해요' / 정정식 '가을로 가는 길' / 백승은 '잔잔히 요동치는 물방울' / 박은경 '부모은중경' / 정태섭 '성산리고분의 아침' / 남선수 '탐매마을 벽화' / 엄혜송 '꽃밭 속, 사진 속, 거울 속' / 임혜연 '꿈이 가득한 방' / 허철구 '귀가'



김완Touch - At the border, 2023. 150cm X 150cm. Mixed media, edited

'속삭이는 꿈' 2024년 특별기획전

6월 20일(목)~7월 25일(목)까지 달서아트센터 달서갤러리

올해로 개관 20주년을 맞은 (재)달서문화재단(이사장 이태훈) 달서아트센터는 6월 20일(목)부터 7월 25일(목)까지 특별기획전 '속삭이는 꿈'을 개최한다.

우리의 잠재의식이나 무의식뿐만 아니라 희망과 소망을 담은 꿈은 각자의 경험과 맥락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속삭이는'이라는 형용사도 무언가가 비밀스럽고 조용하게 말하고 있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지만, 이번 전시에서는 자아와의 대화나 내면의 사고 과정을 시각적 속삭임으로 들여보자는 뜻을 담고 있다. 즉, 내적 목소리의 감정, 욕구, 두려움, 희망 등을 자기 인식과 수용을 통해 억눌린 감정이나 무의식적인 욕구에 귀 기울여 보자는 의미를 두고 있는 전시이다.

전시는 점·선·면의 규칙적인 호흡으로 색채의 리듬을 타거나 반복적인 패턴으로 함

축적 의미에 다가서려는 작가 김완, 윤종주, 문보리, 이렇게 세 명을 초대했다. 이들은 내면세계의 깊이를 탐구하고 예술의 궁극적인 의미에 다가서려는 노력을 최소한의 색상 속에 다채로운 의미를 담은 미니멀한 작업을 구현한다.

DSAC특별기획전 '속삭이는 꿈'은 6월 20일(목)~7월 25일(목)까지 진행된다.

<자료제공:달서문화재단>

최고다 이순신
본방 월~금 9시 30분
재방 월~금 18시 30분

인어아가씨
본방 월~금 12시 30분
재방 월~금 21시

황금신부
본방 월~금 15시
재방 월~금 23시 30분